

민족시인이 기록한 5월 정신, 오라토리오로 부활

5·18 창작 오라토리오 '빛고을' 오늘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광주음악협회·서은문학연구소 주관 문병란 시·김성훈 작곡...12곡 선배

민족시인 고(故) 문병란 시인이 5월 정신을 담아 쓴 시가 '오라토리오'로 재탄생한다.

(대한음악협회 광주지회(광주음악협회·회장 김성훈)와 (서은문학연구소는 30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무대에 5·18 창작 오라토리오 '빛고을'을 올린다. 이 행사는 광주예총이 주최하고 광주시, (서)빛고을문화예술공연위원회, (서)라인문화재단이 후원한다.

올해 39주년 5·18을 기념하며 마련된 이날 공연에선 광주의 대표적 민족문학가이자 시인인 고(故) 문병란 선생의 시에, 광주지역 중견작곡가 김성훈(호남신학대 교수)씨가 곡을 붙인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빛고을'이란 주제 아래 탄생한 작품은 모두 12곡이다.

문병란 시인의 작품 중 어린소년의 죽음을 노래한 '저는 그냥 죽었어요'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극적인 묘사를 시어를 통해 표현한다.

또한 이 작품의 제목을 따온 '빛이여 빛이여 빛고을이여'는 광주의 정신이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라는 시인의 마음이 담긴 시로, 광주정신이 지향할 바를 보여주는 작곡가의 염원이 담겨 있다.

오라토리오 '빛고을'의 총감독은 유형민 광주대 겸임교수가 맡으며, 지휘봉은 조정현 지휘자가 잡는다. 광주시립합창단과 광양시립합창단, 아시안심포니오케스트라가 연주한다.

작품에 연극적 요소를 가미하기 위해 작품 중간 중간 배우들의 연기도 펼쳐진다. 특별출연하는 연극인 강유미씨는 어머니역을 통해 모든 오월 어머니의 아픈 마음을 담기 위해 무대의 경계를 이승과 저승으로 나눠 표현한다. 합창은 광주 시민을 상징하며 각각의 솔리스트(정인성·김우성)는 39년 전 오월 당시 죄 없이 죽은 소년, 힘 없이 죽어간 구두닦이를 대표한다.

김성훈 작곡가는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 문병란 시인에게서 쓴 시를 제게 건네며 곡을 붙였으면 한다고 제안해 왔다"며 "선생께서 각 시마다 레퀴엠, 칸타타, 교성곡, 교향곡 등 개별적으로 악곡의 형태를 붙여놓으셨다"고 회고했다.

이어 김 작곡가는 "(저는) 고등학교 때 5·18을 경험했고, 문병란 시인에게선 5·18을 겪고 그대의 일을 시로 읊었다"며 "1980년 엄혹한 광주를 제득한 음악가와 시인이 만들어낸 공연은 어떤 모습인지 직접 와서 느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원석 광주예총 회장은 "5·18 39주년에는 오라토리오 '빛고을'을 공연하고, 앞으로 수정·보



고(故) 문병란 시인

완을 거쳐 더욱 확대된 규모의 '빛고을'을 선보일 예정"이라며 "내년 40주년 5·18에 맞춰 무용협회, 연극협회, 음악협회, 국악협회, 문인협회 등 광주예총 5개 단체가 협연해 오페라나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으로 각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연은 전석무료이며 티켓은 당일 현장 배부한다. /정겨울 기자



김형중 김민정 신형철 문선화

4명의 작가와 함께 그려가는 '광주의 기억圖'

ACC, 내달 1일 도서문화프로그램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아시아문화원(ACI)과 다음달 1일 오후 4시 '광주의 기억도(圖)'를 ACC 라이브러리파크 극장3에서 개최한다.

이날 프로그램은 'Enjoy 라이브러리파크! 도서문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다음달 1일 열리는 '광주의 기억도'는 ACC와 북클럽문학동네의 공동기획 프로그램으로, '평론가 K는 광주에서만 살았다'의 저자 김형중(평론가·조선대 국문과 교수)이 들려주는 광주의 이야기를 따라 함께 여행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외에도 '아름답고 쓸모없기를' 김민정 시인, '물락의 에티카' 신형철 평론가, 문선화 사진작가도 참석해 한층 더 다양한 광주의 기억도가 그려질 예정이다. /정겨울 기자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에게는 특별 제작된 '광주의 기억도' 굿즈 세트(에코백·배지 6종)가 제공된다. 에코백에는 ACC를 비롯해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광주극장, 대인시장, 사직공원, 양림동 평민마을, 충장로 우체국, 푸른길공원 등 광주 대표 명소가 그려져 있다. 참가자들은 에코백과 함께 제공되는 배지 6종을 이용해 마음껏 자신만의 '광주의 기억도'를 완성해볼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ACC 홈페이지(www.acc.go.kr)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 2만원은 현장에서 결제해야 한다.

2019년 ACC 유료티켓 및 결제수용구 매 영수증 소지자, 2019년 ACC 아카데미 교육생 등은 현장에서 자료증빙 후 무료입장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ACC 홈페이지(www.a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겨울 기자

韓日 노동자 생매장 사건 한일연대, 시·판화로 밝혀져

29일 '나나쓰다테 사건 75주년'...작가의 보고문으로도 밝혀져

일제 강점기 일본의 동북지역 하나오카 광산이 허물어져, 한인 징용자 11명과 일본인 노동자 11명이 생매장당한 나나쓰다테(경도 붕괴) 사건 75주년(5월29일)을 앞두고, 나나쓰다테 사건 전후 한인 징용자들이 배급의 부족 등 회사 측의 부당함에 맞서 조선인들이 투쟁한 근거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관련 연구에 전착해온 김정훈 전남과학대 교수는 29일 "일본의 작가 마쓰다 도키코가 쓴 르포 '하나오카 사건 회고문'과 사건을 체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쓴 시, 광주시립미술관 분관 하정음미술관에 전시됐던 판화 '하나오카 이야기' 중 2편의 작품이 모두 조선인의 투쟁을 묘사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해준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판화작가 니이 히로하루(新居廣治) 등이 새긴 판화 하나 하나에는 시인 기타 세츠지(喜田設治)가 쓴 시가 달려 있어서 사건의 내막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기타 세츠지 시인은 첫 번째 판화 '나나쓰다테의 낙반'을 시로 표현해 '나나쓰다테가 무너지네! / 아버지를 살려내라! / 회사 놈들은 뭘 했는가 / 위령제 때 돈 몇 푼 부조했을 뿐 / 산 채로 매장된 22명의 유골은 / 지

금도 그대로 44년 5월의 일일세'라고 썼다.

김 교수는 "1944년 일본전범 기업(도와홀딩스·동화광업)이 일본인 노동자와 조선 징용자에게 중심 기둥도 세우지 않고 난공을 명령해, 하나오카강 밑을 파다가 경도가 붕괴돼 일본인 11명과 조선인 11명이 생매장당한 사건을 배경으로 노래한 것"이라고 전했다.

세츠지는 '투쟁하는 조선인들'에서는 '조선의 노동자들- 농부들도 징용되어 왔지/그 한반도 사람들/ 마침내 참지 못하고/우루루 사무실로 몰려와/ "입금을 올려라!"/ "배급을 똑바로 해라!"/ "우리들은 마음속으로 손뼉쳤지/조선인들이지만 용기가 대단해"라고 썼다.

김정훈 교수는 "이는 회사 측에서 조선인들에게 저 임금에다가 배급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투쟁한 것을 그대로 시로 표현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 시가 '나나쓰다테 낙반'이라는 작품 뒤에 배치된 것에 유의하고 싶다. 회사 측에서 동료들을 생매장시켜 살해한 것에 대한 조선인들의 울분이 반영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르포적 소설 '망명의 사람들'에도 조선인에 대해 회사 측에서 부당하게 대우한 사실과 이에 항의하



'나나쓰다테의 낙반'(1951)

/광주시립미술관 제공

며 일본인 경계들에 맞서는 내용이 나온다면, 판화와 시, 작가가 쓴 르포와 작품이 모두 일치하게 기술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우리들은 마음속으로 손뼉쳤지"라는 부분을 거론하며 "나나쓰다테 경도가 허물어졌을 때 한인 징용자와 일본인 노동자는 연대해 한인 징용자 1명을 구출했는데, 시에서도 조선인들과 연대하는 일본인 노동자들의 심경이 그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겨울 기자

"우리 영화보러 지스트 간다"

내일 잔디광장서 '위대한 쇼맨' 상영...누구나 관람가능

광주과학기술원(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이 지스트)에서 초여름 잔디밭 영화제가 열린다.

GIST(총장 김기선)에 따르면 31일 교내 기계공학부 잔디광장에서 9×6m의 대형 모니터와 최신식 사운드 음향을 갖춘 영화를 상영할 예정이다.

오후 8시 시작되는 이날 영화제는 '지스트가 가진 자원을 활용해 지역 구성원에게 다양한 문화행사를 제공하고 지역민과의 소통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제8대 김기선 총장의 운영 방침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지스트는 쇼비즈니스의 창시자이자, 꿈의 무대로 전 세계를

매료시킨 '바람'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오리지널 뮤지컬 영화 '위대한 쇼맨'을 상영한다.

비주얼과 스토리, 음악성까지 모두 갖춘 명작으로 손꼽히는 '위대한 쇼맨'은 '우리는 누구나 특별하다'는 메시지로 관객과 감동소통을 한 작품으로 유명하다.

지스트는 지역민에게 오후 7시부터 선착순으로 생수와 팝콘 및 다양한 기념품을 제공하고 영화는 8시부터 상영할 예정이다.

김민근 학술정보처장은 "지스트는 연구의 요람으로만 알고 있는 지역민들의 편견을 깨고 지역민 모두의 열린 문화공간임을 강조하기 위해 이번 영화제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정겨울 기자

전통 남도 한정식의 명가!
가족회관

삼계탕, 소꼬리곰탕

한정식 1인: 2만 5천원부터 ~ 10만원까지 <맞춤형 주문가능>

저녁특선 2만원(3인 이상)
점심특선 한정식(1인 20,000원, 3인 이상 18,000원)

▶ 결혼피로연, 각종모임, 상견례 전문, 맞춤형 가격 주문가능. ▶ 가족회관: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159-15 (동명교회 옆)
▶ 예약전화:062)222-3845 (가족회관 건너편 대형주차장 완비)

알파 카피 센터 광주보건대점의 새로운 운영자를 찾습니다!

문구생활·편의Shop - Alpha 광주보건대점 T. 263-4993

복사·제본·코팅

매각 합니다

보증금 - 3,000 만원
물품 - 3,000 만원
기계 - 2,500 만원
권리금 - 2,500 만원

1억 1,000 만원

알파 카피 센터 광주보건대점 | 문의 : 010-4821-8929
광주광역시 광산구 북문대로 419번길 55 보건대점